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2차 무역실무 기출문제 총평

1. 출제경향

2024년 제41회 관세사 제2차 시험 무역실무 과목은 최근 출제유형과 유사했으며,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유기적 연계된 범위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규범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의 유형이라 판단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에 여러 물음으로 구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문제의 특성상 답안작성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답안작성지도반 및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루었던 문제들과 대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에 거듭 강조했던 3대 국제규범 (UCP600, Incoterms®2020), CISG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기타 법규로 보험과 관련하여 MIA의 내용도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범위는 보험, 결제, 무역계약규범 등 운송 및 종료를 제외하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각각 1개의 물음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최근 단순 나열식의 문제 유형과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특정 규정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답안을 요구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 난이도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역관련 주요 법규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단순한 암기와 서술을 요구하는 물음을 위주로 출제된 것으로 보아 '중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답안의 배점이 하나의 문제에 물음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물음의 내용 또한 기술하여야 하는 답안의 내용을 구분하여 묻거나 답안의 항목 수를 명시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단순 암기가 아닌 법규의 내용을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되긴 했으나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3. 준비방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만을 위주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기출 문제의 경우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대상이나 항목의 수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쓸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었으나 올해의 문제의 경우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만 묻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특정 해의 기출 문제의 유형만을 준비하기 보다는 매년 문제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하되 지엽적인 부분(대상, 항목등)을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해온 무역관련 법규(CISG, UCP600, Incoterms®2020)를 중심으로 대비하되 3대법규 이외에 무역관련 법규들의 출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법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기출된 바가 있는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 점에 비추어 기출문제의 중요도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어 수험과정에서 기출 문제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최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법령(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 법과 시행령의 내용은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각자 준비한 만큼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준비를 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력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